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일체 만물만생 생명의 근본이 '佛'

24면에서 계속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 아니라는 뜻을 연등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믿고 들어가라. 물러서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불성이 없다면 송장이 되죠. 초가 없어도 불이 없고 불이 없어도 초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없어도 불성이 없고 불성이 없어도 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성이 있는 줄 알라. 알면 그냥 일거수일투족 다 그 놓이. 불성이 하는 거라고 믿고 거기 보라. 그러면 몸과 불성이 틀어 아니게 된다. 그럴 때 정신계와 물질계가 틀어 아니게 된다 라는 얘깁니다. 불성이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또 불성이 있는 줄 알면 여려한 줄 알라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 여려하다 이

켜요. 쉼의 순간에 그 향은 타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향내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크고 넓게 써서 항상 공심으로써 공덕을 쌓아라 하는데, 그 뜻은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더불어 같이 향내음을 맡게 되죠.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자기의 아는 바로는 그 향내를 천리만리라도 맡게 돼 있거든요. 빛보다 더 빠르죠. 향내는 물 속속 들어갈 수 있고 허공으로도 두루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든지 들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향 한 개에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향을 태우고 초를 태우셨습니다. 그게 자기 몸인데 말입니다. 초를 태우고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밝혀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향을 양식을 삼는다 이런 말이지요. 향을 더불어 같이 내음을 맡게 해서 양식을 삼게 한다.



그림 · 최주현

악한것 선한것 긴것 짧은 것
못난것 잘난것 모두 갖췄기에
부처를 이룰수 있는 겁니다

겁니다. 잘 쓰지 못해서 그렇지. 아프려면 아프라지. 죽으면 죽으라지 하고 딱 말리다만..... '잘되는 건 고맙다. 못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니까 잘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그렇게 수레를 굴리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려한 줄도 알게 되죠. 어떤 게 닥쳐도, 실사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응, 무너지게 하든 죽이든 살리든 너가 이끌어가는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하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와 바깥으로 비치게 되죠. 그렇게 정돈이 되는 걸 비비친다고 하는 겁니다.

죽 정신적 양식 말입니다. 우리는 뭘 물질로 먹어야 양식을 삼는다고 그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공식하는 걸 말합니다. 물에서 사는 거든, 들에서 사는 거든, 질척한 데서 사는 거든, 허공에서 사는 거든, 사람이든, 어떠한 생명체든지 그 향의 내음을 맡고 자꾸 발전을 해서 자기를 벗어나고 진화되는 그런 역할을 주는 향내음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구가 공기주

나지 않으나 스승과 제자가 있다면 예의를 지켜야 하니가 방편이지만 방편 아닌 방편으로 예의를 올리는 거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도 그러한 날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은 과거로부터 공부하신 그 자신의 자

가 없다는 얘깁니다. 잡수신 사이가 없이 잡수셨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시자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용납하셨다 이런 뜻이요. 모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부

절 다 집어넣고, 즉 말하자면 나온 자리에도 다시 하나로 몰아서 집어넣은 거죠. 바다의 물을 칼로 끊으려면 끊어집니까? 번뇌를 끊어라 하는데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게? 제 속에서 나온 거니까 제 속에 집어넣는다면 이것이 다 벌여줬다 오므라졌다 하는 작용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쓰여지는 문제니까 자기의 지혜에 달려있는 거죠. 자기한테서 화해서 나온 것을 자기한테 되집어 넣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마구나라도 그것은 당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생이라는 그 자체가 전체가 다 들어 아니라는 걸 아니고 사생의 연연을 일대사로 지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기주머니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불교라는 것은 스님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배우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물리가 터지면서 삶을 개척하는 것이 교(敎)거든요. 그러니 어느 교든지 막론해 놓고 이 진리 속에 안 들어간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란 진리 자체를 불교라고 이름해 놓은 거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불교를 알면 불이 아닌 줄 알고, 물이 아닌 줄 알면 그 폭이 넓어지고 지혜로와져서 한바다 가운데 증명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주 가난한 노파가 지극정성으로 쉼 불은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았는데, 부자들이 와서 쉼 불은 다 꺼졌다고요. 우리가 마음의 불이라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이 어떻게 꺼집니까? 마음의 불이라면 어찌 꺼질 수가 있겠습니까? 꺼졌다 꺼졌다도 없이 그 불꽃은 영원한 거죠.

그럼 왜 등을 켜느냐. 우리가 사는데 모습이 없으면 안되듯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고 은공을 모르면 안되겠기에 이 뜻도 보면 모두 거기에 부합된 거죠. 내가 마음의 정성이 있다면 등을 켤 수 있는 거고 마음의 정성이 없다면 불을 켜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켜기 싫은 데 어떻게 켜니까? 마음도 켜고 싶으니까 켜는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보이게끔 했다

에 어느 거 하나 내 아님이 있었습니까?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으니 어찌 그 자비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처님의 눈물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눈물과 같습니다.

사월 초파일에 이렇게 등불을 켜면서 한시라도 자기 근본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거기다 믿고 놓는다면 은산철벽을 뚫지 못할 리가 없고 바다를 건너지 못할 리도 없습니다. 살면서 '아, 이걸 정말 안돼. 안돼. 안될 수 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면 그건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되고 안되고는 오직 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시자가 콩이냐 팔이냐 참견을 합니까? 시자 앞에 닦였으면 닦친 대로 믿고 나가는 건 주인이 알아서 하죠. 주인이 보현신으로 화해가지구선 그냥 짝! 하고 내 마음이 선두에 서면 그냥 같이 화합해 준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앞장서지 않는 이상에는 같이 화합될 수가 없죠. 내 마음이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물러나게 돼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서정연하게 말할 줄 할 줄은 몰라도 그 뜻만 헤아릴 줄 아신다면 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서 이혼을 세우고 그러는 걸 목적을 삼는 게 아니고 현실에 실천하고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내 능력을 내가 만들어서 삶을 잘 이끌어 나가시면 모든 것을 어려움 없이 해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대자유법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승은 내 마음의 스승일 뿐이지. 나는 누가 가르쳐 줘서 한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스승이 나를 이끌어 줘고 이끌어 주니까 배웠고, 배우는 반면에 배우지 않았고, 배운 게 없었고 한 게 없었고, 내가 없었고 남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내 스스로서 배운 거지. 남으로 인해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기에 돌맹이 하나 풀 한 잎이라도 있으니, 그 모두가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배웠지. 그것들이 없었다면 어찌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부 스승이요. 안에도 스승이요 바깥에도 스승이니 어찌 내가 나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 풀 한 잎을 보고 꽃 한 송이를 보고 이 벌레먹은 나무가 쓰러진 걸 봐도 참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보면 더욱 더 하죠.

부처와 중생이 틀어 아니라고 하듯이 여러분들과 일체불과 일체 만물과 모두가 틀어 아니 것을 아시게 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근본 자리 한군데서 나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니까 내 근본자리로부터 감사한 걸 다 집어넣고,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어떠한 악마가 닦친다 하더라도 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 생각하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거기서 해결하신다면 그릇이 왕창 비었다가 담기고 또 비었다 담기고 이러니 까 아무리 큰 것이라도 아니 담기는 게 없죠. 뭐든지.

여러분들의 법의 스승은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잊으셔서 안됩니다.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고 또 법의 부모가 내 마음 속에 있으니 그 해를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악학같이 해야지' 이러지도 말고 '안 해야지' 이러지도 말고 그냥 스무드하게 진행하십시오. 내 생각이 돌아와도 부모를 생각해보세요. 내 생일이 어떻게 내 생일이겠습니까? 부모의 아픔을 밀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생일이 돌아오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거라도 맛있는 걸 정성스럽게 가져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잡췌 보세.'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길에서 나서 길을 걸으면서 또 걸로 갑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갑니다. 생각해보세. 안 그런가. 부처님과 다른게 하나도 없어요. 여려분 모두가 부처님들이십니다.

마음을 발전 못하면 죽은거나 마찬가지로 선악 둘로 보지 않고 놓을때 자유 얻어

머리라면 그 공기주머니 바깥, 즉 대기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제가 없고 광대무변해서 우주 천하 삼천대천세계, 일체 만물만생 천차만별이 다 내 몸이 될 수 있고, 다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다 내 모습 내 형체가 될 수 있고, 내 부모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한도량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자유껏 쓰라고 해 놓은 거니까 마음대로 자유껏 쓰세요. 또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틀어 아니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더러운 건 더러운 거죠. 하지만 더러운 게 있다고 한다면 깨끗한 게 있다고 깨끗한 게 있다고 하면 더러운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잡아먹어라 이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양면을 다 놓는다면, 악과 선을 다 놓는다면 그 가운데 자유가 나와요. 어때요? 악과 선을 둘어 아니게 보는 그 가운데 마음에서 철저히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악을 버리지도 않고 선을 갖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철저히 자유자재권을 얻는다는 얘깁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과 역대 조상들이 다 공부하실 때에 전부 자기 몸을 태워서 공부해서 향으로서의 양식을 삼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벅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배종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만 오신 날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날이, 항상 여러분들이 움직여가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한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떠

부처가 자기를 형성시켜서 자기를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될 수가 없죠. 과거로부터 벌써 되어 있었으니까, 0미.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보여 줄 수는 없거든요. 이미 부처가 돼서 나오셨지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중생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게 방편이 아닌 방편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셔도 고행을 하실 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만 남게 돼서 쓰러지게 되셨던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쓰러져 있을 때 자기 안에 부처가 '너무 먹어도 안되고 너무 아니 먹어도 안되고 육신이 있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 것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입니다. 방편이 아니면서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방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우유죽을 잡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말이지요.
그걸 잡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이제는 공부하시려고 저렇게 죽을 잡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을 먹는 것도 시자가 심부름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을 먹어야 부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죽을 먹어야 모든 생명들이 다 작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부처님을 공양하고 시자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공양을 먹어도 자기가 먹은 사이

처님이 깨우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와 자가 상봉을 해서 깨닫기는 했는데 틀어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 주신 겁니다. 자기 일생을, 그래서 틀어 아닌 공부가 돼야 되겠기에 인제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마구니와 시너들 또는 악마들이 마구 달려드는 거죠. 차례차례로.

우리가 공부할 때면 그런 마가 자꾸와 붙습니다. 이걸로도 화해서 나오고 저걸로도 화해서 나옵니다. 악마로도 나오고 마구니로도 나오고 시너로도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두가 말도 없이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주인공에서 화해서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주인공에서 어떠한 화해서 나온 것도 자기 속에서 화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법신, 보신, 부처님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나눌 것도 없죠. 화해서 이걸로도 나오고 저걸로도 나오는 것이니 마구니 또한 판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속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마구니도 나오고 시너도 나오고 온갖 것이 다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부처님 눈앞에 탁 보인 거죠. 그런데 그걸 전부 한 군데다 집어넣으니까 한 군데로 들어가서 딱 어지는 거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모두를 공략하는 대로 꽃으로 화해서 향기를 내뿜어서 그 한군데다가 모든

뿐이지. 내 마음이 내포된 마음의 등이다 이겁니다. 마음의 불!

우리가 언제까지나 중세계에서만 산다는 법은 없습니다. 중세계에서는 살기가 참 어려워서 사생들이 다 고에 휘말려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사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같이 더불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중생이고 나는 부처라서 건져주는 게 아니고, 사생의 인연을 다 짓고 보니까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전부 나 아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서 그렇게 되는 거지. 너희들은 중생이고 나는 부처니까 내가 건져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이 어디가 잘못되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아유, 차라리 내가 대신...' 이렇게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대신해 줄 수는 없죠. 그런 부모의 마음이나 깨우친 분들의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너 나가 따로 있어서 부모가 따로 있고, 자식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할나할나 화해서 구름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또 딱 자식이 되고, 판 부모가 되고 항상 이렇게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깨우친 분들은 세상